



그림같은 바다 보석같은 섬의 재발견

여수 앞바다의 다도해. 민선 6기 '가고 싶은 섬'을 브랜드 시책으로 삼은 전남도가 섬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고민하고 있다. 섬의 독특한 문화와 자연자원을 보존하면서 섬 주민과 외지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해양자원으로서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려는 시도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1부 다도해는 지금 서남해안의 섬들 상

섬이 지역의 자원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이후의 일이다. 과거 무인도는 아예 거론의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유인도는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사업들이 주를 이뤘다. 상하수도를 시작으로, 도로, 선착장을 놓고 연륙·연도교로 물의 편리함을 섬에 전파시키는 것이 우선 목표였다. 도서개발사업이라는 이름 하에 진행된 이들 사업으로 물과 비교적 가깝거나 자원이 풍부한 섬의 편의성은 크게 높아졌다.

섬, 고립에서 벗어나 열린공간으로

과거 섬을 찾는 이들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선박으로 1시간 이상 거리의 섬은 이동 당시의 날씨, 비용 등의 문제가 뒤따르면서 섬주민이거나 친척, 그 섬에 대해 알고 있는 몇몇 전문가 그룹, 일부 여행객 등이 고착이었다. 하지만 연륙·연도교가 놓이고 선박 기술이 향상되면서 외부로부터 폐쇄돼 있었던 섬의 문이 열렸다. 거기에 맞춰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주5일제가 정착됐으며, 인터넷과 SNS의 발전은 섬 여행의 대중화가 열리면서 섬을 찾는 이들이 크게 증가했다.

어쩔 수 없이 오랜기간 사람의 방문이 적었고, 그로 인해 자연 그대로를 간직하며, 독특한 문화를 간직해왔던 섬에 새로운 '자극'이 가해진 것이다. 섬은 또 한편으로 해양시대를 맞아 그 전초 기지로 부상했다. 단순히 바다에 놓여있는 공간으로써의 섬이 아니라 '확장성'을 지닌 해양산업의 핵심거점이 됐다는 것이다.

섬의 가치가 나날이 증대되면서, 가장 많은 섬을 간직한 전남도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섬의 자연 파괴와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섬주민의 불편을 줄이고, 또 한편으로는 섬의 독특한 문화를 보존하면서 외지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하기 때문이다.

우선 거주 인구가 많은 유인도는 주민이 주체가 돼 전남도와 전문가들이 지원하며 섬의 발전 방향을 찾고, 규모가 작은 유인도나 무인도는 외국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 수요를 감안, '호화' 여행객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물'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섬의 매력인 독특함이 사라지고, 충분한 수요가 없는데도 강행되는 '관'의 개발은 섬 자산의 파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국 섬 3분의 2 ... 전남도 무궁한 가능성

대한민국의 섬은 모두 3409곳으로, 이 가운데 2219곳이 전남 서남해안에 흠뻑 퍼져 있다. 사람이 사는 섬은 296곳, 무인도는 1923곳이다.

지난 2005년 조사에서 전남의 섬은 1965곳(유인도 279, 무인도 1686)이었으나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는 곳이 섬으로 다시 등록되고, 무인도에 사람이 들어가 살면서 섬의 갯수는 254곳이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전남의 섬이 몇 개인지는 공식 집계마다 모두 다른 실정이다. 섬에 대한 기준이 조사하는 기관마다 모두 다른데다 인공위성으로도 발견하지 못하는 섬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민선 6기 사업으로 '가고 싶은 섬'을 내건 전남도가 10개년 계획 수립에 나서면서 우선 햇갈리는 섬의 개수, 현황 파악, 섬 투자유치 조건 등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5억원을 들여 '섬 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의 섬은 신안 880개, 여수 365개, 완도 265개, 진도 256개, 고흥 230개, 해남 71개, 영광 62개, 무안 28개, 보성 21개, 장흥 14개, 목포 11개, 강진 8개, 광양·영암 3개, 순천 2개 등이다.

여기서 섬은 밀물과 썰물에 상관 없이 수면 위에 존재하고, 흙과 식물이 존재하는 곳이다. 그러나 신안군은 지난 2008년 3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조사하면서 바위까지 포함시켜 1025곳을 섬으로 분류했다.

신안군은 거기에 군 홍보를 위해 이를 1004개로 발표해 '천사' 브랜드를 사용할 만큼 섬에 대한 기본 통계를 저마다 다른 실정이다.

유인도 중 면적 1㎢ 미만 섬 154개

전남 섬 면적의 98%를 차지하는 유인도의 경우 1㎢ 미만이 154개로, 전체의 52%를 점유하고 있다.

면적이 좁은 유인도가 다수 분포하고 있는 의미다. 가장 큰 섬은 여수의 독산도로 70.78㎢에 이르며, 그 뒤를 고흥 거금도(63.57㎢), 신안 자은도(52.19㎢)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섬의 지목별 이용 현황을 보면 유인도 전체 면적 1828㎢ 가운데 임야가 전체의 57.4%를 차지하고 있으며, 답 12.9%, 전 15.1%, 기타 12.6% 순이다.

규모 있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는 2.35%에 불과할 정도로, 개발의 손길은 아직 미치지 못했다.

섬 거주인구는 지난 2005년 8만3137세대 20만772명에서 지난 2010년 8만6226세대 19만4586명으로 세대 수는 증가하고 인구 수는 감소하는 추세다.

500명 미만의 섬이 257개소로, 전체의 86.8%에 달한다. 1~25명 미만의 섬도 78곳이나 되고, 25~50명 미만의 섬은 46곳, 50~100명 미만의 섬은 48곳에 이른다. 다시 말해 소규모 거주 인구를 유지하고 있는 섬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이들 정착인구가 감소할수록 섬이 유지해오던 독특한 무형문화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 기존 주민의 정착률을 높이는 방안도 고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라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물과 연결되는 순간부터 10년이 지난 섬은 섬에서 제외되도록 규정돼 있어 연륙·연도교의 잇따라 개통에 의한 섬 자산의 감소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특허 제10-1097784호
제10-0562035호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트라이슈머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트라이슈머® 20년은 가는데!!
단열복합시트방수

시공과정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2.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탑코팅 시공
4. 옥상 시공 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델 **탈렌트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는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저탄소 녹색(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